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

김 래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분야에서 형식주의의 최첨단이라고 할수 있는 모더니즘만 하여도 형형색색의 류파를 이루고있지만 그것은 다 사람이 리해할수 없는 주관의 세계를 추상적형식에 담아 제멋대로 그려냄으로써 문학의 사상적내용을 흐리게 하고 인식교양적기능을 마비시키고있다.》(《김정일선집》 제16권 증보판 140페이지)

모더니즘문학조류는 부르쵸아문학창작가들이 사실주의문학예술을 반대하고 저들의 형식주의문학예술을 현대적인것으로 자처한데로부터 나온 부르쵸아형식주의문학조류로서 20세기 후반기에 영국에서 크게 성행하였다.

영국의 모더니즘문학은 세계적으로 만연되고 영국자체내에서도 력사적으로 존재하여온 각종 부르쵸아문학들을 토양으로 하여 제1차 세계대전이후에 영국문단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주의문학의 창조를 반대하고 극단의 형식주의를 주장하여나선데 있다.

형식주의는 사실주의문학예술이 본질적인 생활을 반영하는것을 반대하고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현상들을 과장하며 인위적으로 내세운다. 그리하여 그것은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을 거부하는데로 나아간다.

토마스 엘리엇, 스티븐 스펜더를 비롯한 영국모더니즘문학의 창작가들은 자기들의 평론과 시, 소설들을 통하여 로골적으로 형식주의를 고취하면서 문학이 사상적내용을 반영하는것을 반대하여나섰다.

토마스 엘리엇은 자기의 평론들에서 《순수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제창하면서 문학예술이 광범한 대중이 리

해할수 있는것으로 되는것을 반대하여나섰다. 그는 자기의 견해를 《고전가란 무엇인가》(1946), 《문화의 규정에 대한 의견》(1948), 《시와 시인에 대하여》(1957) 등의 평론들에서 구체적으로 표명하였다.

엘리어트는 《시는 꿈과 같은것이며 그것은 단어들이 자기의 현실성 즉 고유한 의미를 잃어버릴 때의 의식의 경계선들에서 창조된다.》고 주장하면서 시문학자체를 고도로 추상화할것을 요구하였다.

모더니즘문학의 대표적창작가의 한사람인 녀류시인 에디스 씨트웰(1887-1964) 역시 자기의 작품들에서 극단의 형식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는 철학서사시 《카인의 그림자》(1946)에서 부르쵸아문명의 위기를 폭로하고 전쟁도발자들에게 대한 항의를 표현한다고 표방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의 작품에서는 완전히 형식주의적이고 신비와 상징으로 일관된 표현들이 사용됨으로써 시의 내용을 리해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모더니즘의 시인이며 평론가인 스티븐 스펜더(1901-1995)는 평론 《파피의 요소》(1935), 《창조의 요소》(1953) 등에서 시문학에서의 형식주의를 전적으로 옹호하여나섰다. 그의 시집들과 시 《자비로운 나날들》(1977)은 기교일면엔 치우치고 형식주의적이고 상징과 암호로 이루어진 작품들이다.

모더니즘문학의 창작가들은 소설분야에서도 생활의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라렬하는데 열중하였다.

안쏘니 포웰(1905-2000)은 12권으로 된 연속소설 《시대의 음악》에서 어떤 일정한 원칙에서 영국의 상류계층의 생활을 비판하는것이 아니라 객관적립장에서 온갖 자질구레한 생활자료의 라렬에만 열중하고있다.

헨리 그린(본명 헨리 요크, 1905-1973)도 사회문제와 유리된 개인리기주의적 세계의 사달사를 그린 모더니즘소설들을 내놓았다. 그는 소설 《사랑》에서 아일랜드의 큰 지주집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전쟁시기를 리용하여 주인 지주에 대하여 점차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하인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

모더니즘의 소설작가의 한사람인 크리스터퍼 이쉬부드(1904-1986) 역시 형식주의적작품들을 적지 않게 썼다. 창작의 첫 시기에 그는 《노리스씨가 기차를 바꾸어 탄다》(1935), 《베를린이여, 잘 있으라》(1939)와 같은 소설들에서 가상적이고 비도덕적인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전적으로 개인주의적세계에서 헤매이는 인간들의 생활을 그려내어 현실을 외국하고 대두하고있던 나치즘의 반동적정체를 가리우는데로 나아갔다.

그후에 작가는 소설 《수다스러운 제비꽃》(1945), 《러행중에》(1962), 《외로운 사람》(1964), 《강가에서의 상봉》(1967), 《캐슬린과 프랭크》(1971)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이쉬부드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를 배경으로 히틀러파쑈도당의 유대인들에 대한 대학살을 취급한다고는 하였으나 전쟁문제와 멀리 떨어져서 이 기간에 도이칠란드, 그리스, 미국에서 만났던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들을 라렬하였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작품들을 통하여 개인주의적 《자유》를 설교하면서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방하여 나선데 있다.

부르쥔아지는 사회와 집단, 가정앞에 지닌 도덕적책임과 의무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으로 보면서 그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타락과 방종의 세계에서 그 어떤

규범도 다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인간생활에서 공인된 규범과 고상한 량심에 기초한 도덕적의무감을 《구속》으로 묘사하며 거기에 대해 《반항》할것을 주장하며 패륜패덕을 오히려 찬양한다.

대표적으로 앵구스 윌슨(1913-1991)은 소설들에서 영국사회생활의 부패한 측면과 함께 인간정신의 타락, 리기주의적심리를 그려보이였다. 그는 변태적이고 추악한것에도 정상적인 인간정신에서와 똑같은 원리가 지배한다는 자기의 실존주의적주장의 정당성을 론증하려고 애썼으며 이로부터 로골적인 색정주의와 도덕적패덕한들인 동성연애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는 또한 자기의 작품들에서 기형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전형적인 개인리기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오히려 사회에 대한 그 무슨 《반항》을 보여주는듯이 묘사해나섰다.

그의 소설 《앵글로-색슨식태도》에서는 한 늙은 교수가 과학연구사업에서 위조협잡행위를 하는것을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그릇된 행위를 비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수의 행위를 개인리기주의적견지에서 미화분식하면서 정당화한다.

소설 《엘리어트부인의 중년나이》에서는 사람들사이에 공인된 도덕규범을 오히려 《악습》으로 모독하면서 개인주의적《자유》를 주장하였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인간의 건전한 정신을 어지럽히고 타락에로 이끌어가고있는데 있다.

이 문학의 창작가들은 자기들의 작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신비, 죽음, 종교적세계, 허무주의와 병적혐오감을 고취하며 인간의 타락을 설교하고있다.

토마스 엘리어트는 자기의 많은 시들에서 비리성적이고 초감각적인 인식을 건전

한 의식에 대치시키면서 죽음과 인간의 무기력에 대한 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그의 시들은 사람들의 의식속에 신비주의와 허무주의를 류포시키고 사람들의 정신을 현실생활에서 떼내어 일종의 최면술에 걸리게 하고있다.

윈드햄 루이스(1886-1957)는 지난 시기의 모든 진보적예술창조자들과 진보적인 인사들을 반동적인 속물들과 한데 뒤섞어 경멸하고 조소하였다. 그는 장편소설 《애기들의 날》(1952)에서 이른바 죽은 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신비주의와 환상으로 그려내었다.

그후에 루이스는 《인간의 나이》(1955)라는 제목으로 총서형식으로 된 작품을 내놓았다. 이 소설들은 다 종교적내용을 담고있으며 인간의 죽음과 《태세》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교하는데 몰두하였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로골적인 색정주의, 패륜과 패덕을 추구하여나선데 있다.

모더니즘소설문학에서는 인간의 《성적본능》을 그린다고 하면서 추잡한 남녀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였으며 인간을 동물과 다름없는 저급한 존재로 모독하였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전에 허버트 로렌스(1887-1930)를 비롯한 창작가들은 《채털리부인의 애인》, 《아들들과 런던들》을 비롯한 여러 소설들을 통하여 사회적존재인 인간을 동물과 같이 보면서 《동물적본능》을 묘사하는데 열중하였으며 색정주의, 패덕을 고취하여나섰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서 영국모더니즘문학은 프로이드주의와 같은 반동적사상조류에 동조하면서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화와 타락의 세계에로 고의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흐리게 하는 해독적역할을 놀았다.

대표적인 창작가 로렌스 듀렐(1912-

1990)은 《알렉산드리아 4부작》과 그련속편으로 된 《애비농소설권》(전 5부작)에서 달리라는 인물을 련속 등장시키고 그를 따라가면서 색정적이야기들을 로골적으로 라렬하는데 치중하였다.

올도스 헉슬리(1896-1964)는 소설 《천재와 녀신》(1955)에서 마틴즈라는 학자의 가정과 그 가정과 련관된 마틴즈의 조수 리버스와의 관계를 그리면서 인간을 모독하고 더러운 색정과 패륜, 패덕을 로골적으로 고취하였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작품들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 전쟁공포증과 미래에 대한 극도의 비관주의를 류포시키며 반공사상을 고취한데 있다.

이것은 모더니즘문학의 한 류파인 《원자유토피어》소설들에서 명백히 찾아볼수 있다.

올도스 헉슬리는 지식인의 가정에서 태여났으나 어린시절부터 반동적부르조아사상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반동적세계관은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병적인 혐오감과 우유부단한 절충주의를 표현한 작품들을 내놓게 하였다.

그의 작품인 《원숭이와 본질》(1948)에서는 원자전쟁의 후과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세계가 파멸의 위기에 처한것으로 꾸며내고 인간의 타락을 그려보여주면서 색정적계기들을 의도적으로 끌어들여 비관주의와 미래에 대한 공포를 설교하였다.

헉슬리의 다른 소설 《섬》에서는 원자전쟁의 파괴적후과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속에 미래사회에 대한 비관과 인간의 타락, 전쟁공포증 등을 직접적으로 고취하였다.

조지 오웰은 소설 《동물농장》(1946)에서 풍유적인 수법으로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사회계급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계급투쟁, 혁명투쟁을 비방중상하였다. 오웰의 다른 소설 《1984년》(1949)에서는 직접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을 악의에 차서 공격하였다.

이 소설에서 오웰은 어떤 《당》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완전히 파쇼적폭압과 도덕적파산에 빠지고만것으로 묘사하였으며 새 사회건설을 위한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을 헐뜯고 사회주의제도를 《전체주의》로 모독하였다.

이블린 위도 인민들의 반파쇼민족해방투쟁과 새 생활, 새 제도를 위한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비방중상하는 반동적내용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위는 소설들인 《무장한 사람들》(1952), 《장교들과 신사들》(1955), 《길버트 핀폴트의 시련》(1957), 《무조건항복》(1961) 등에서 광범한 인민들의 피어린 해방투쟁을 모독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근로인민들의 지향을 로골적으로 비방중상하였다.

20세기 70년대에 들어와서 영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난 모더니즘의 한 류파인 《원자유토피어》를 더욱 개악한 《디스토피어》문학경향이 나타났다.

16세기 문예부흥시기에 영국의 작가 토마스 모어가 인류의 이상향을 공상적으로 그려보여주는 소설 《유토피어》(1516)를 내놓았다면 《디스토피어》는 이와는 정반대로 극도로 부패타락하고 퇴보하여 사람들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미래사회를 공상적으로 그려보여주었다.

대표적작품들로는 소설 《미친 맥스》

(1979, 조지 맥스), 《풀잎사귀 질주자》(1982, 리들리 스코트), 《하녀의 이야기》(1989, 아터우드)등을 들수 있다.

모더니즘문학은 그후 부르쥬아문단에 《최현대사조》의 간판을 들고 후기모더니즘으로 등장하였다.

후기모더니즘문학은 근로인민대중을 사상문화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에 복무하는 제국주의어용문학사조이며 퇴화의 극단에 이른 부르쥬아지의 빈궁한 정신세계가 낳은 완전한 반사실주의, 모더니즘의 최신변종이었다.

후기모더니즘은 문학을 현실과 갈라놓고 현실의 정당한 반영을 거부하는 반사실주의문학이다. 후기모더니즘의 창작가들과 문예리론가들은 문학과 그 반영대상인 객관적현실을 완전히 유리시키는 추상화된 리론을 조작하여 현실이 문학에 반영되는 것을 거부하여나섰다.

후기모더니즘문학은 또한 내용을 무시한 기형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어 현실의 정당한 반영을 가로막았다. 그리하여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극도로 기형화한 《초월문학》, 《베타문학》등을 조작해냈다.

영국모더니즘문학은 이처럼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무시하고 사람들속에 공포와 절망, 비판주의를 류포시킴으로써 인민들의 계급적각성과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도구에 지나지 않았다.